

농식품부,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개최

농촌체험·직거래·관광 활성화 기여자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일 오후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도농교류의 날'(7월 7일)은 도시와 농촌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도시민에게는 농업·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 전국농촌체험마을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총 18명의 유공자를 포상했다. 바람새 농촌체험휴양마을 김경남 대표가 석탑산연혼

장을, 남서울농협 안용승 조합장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으며,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농식품부 장관 표창 7명, 장관 상장 1명 등이 포함됐다. 수상자들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1사1촌 자매결연, 기업 농어촌 상생협력, 귀농·귀

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포상 외에도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우수 홍보 부스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과 농촌여행 홍보 성

과를 격려했다. 김종구 차관은 "농촌체험과 관광 활성화, 품질인증 농축산물 홍보,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여름휴가에는 가족과 함께 농촌을 찾아 쉽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10월 수상 결과 발표...선정 시장관상·우수사례 홍보 기회 제공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경기도 대표 경영체로 '이폴원'과 '초록미소마을' 2곳을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가공·유통·체험·관광과 연계해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대표 '용인군 충테마파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6월 공모에 8개 경영체가 참가했으며 센터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폴원에는 50여 년간 축적한 식물 자산을 문화예술과 생태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지역 농가 상생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록미소마을은 농업 부산물인 쌀겨에 자체 발효기술을 접목한 '쌀겨 효소 찜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업 자원

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까지 중앙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수상 경영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모두 5개 경영체를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우수사례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최연철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이끌 우수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증 제도 운영과 현장 코칭, 판로·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281개 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etimes.com



▲이폴원에(경기도청 제공)

농진청, 새만금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개소

노지 스마트농업·간척지 활용 고도화

농촌진흥청이 새만금을 미래 식량안보와 첨단농업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의 문을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가기관 최초의 간척지 전문 연구시설로, 연구·부속시설 5동과 시험재배지 등 총 100ha 규모를 갖췄다.

간척지 농업의 현장 연구와 기술 실증, 민관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약 9,430ha 규모의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대규모 곡물 생산과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이 가능한 미래 농업의 핵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영농협의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판식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간척지 농업, 국가 식량 전략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간척지 활용 전략과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앞으로 염분과 습해 등 간척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작물 재배기술과 토양·수질 관리, 물·양분 정밀관리, 드론·위성·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구·실증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과 연계해 국산 밀·콩의 안정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 영농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간척지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허승오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산·학·연, 농업 현장이 함께 협력해 새만금을 식량안보와 첨단농업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6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알제리 씨감자 연구역량 강화 연수 실시

스마트 농업·종자기술 현장 교육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5일부터 18일까지 알제리 국립농업연구소(INRAA) 실무급 연구원들을 초청해 '알제리 씨감자 생산 연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알제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농촌진흥청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씨감자 사업'을 추진했던 국가로, 당시 씨감자 재배 기술과 품종 보급, 시설 구축을 통해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연간 약 1억 달러의 수입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해당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알제리 연구원들이 신품종 개발과 스마트 생산체계 등 선진 기술을 학습하고 현지 환경에 맞는 품종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프로그램은 씨감자 연구 방법 개선과 현장 적용 방안 발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감자 우량종자 생산·보급 체계 및 사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운영 현황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등을 학습한다.

또한 국립식량과학원, 종자산업진흥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을 방문해 국내 종자 관리 및 농업기술 적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평창 '오리는 감자연구

소'에서는 감자 상품화 및 품종 개량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알제리 국립농업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의 종자 생산·관리 기술 덕분에 식량안보가 크게 개선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기술을 현지에 맞게 적용해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가 양국 농업협력의 성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농업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2025년부터 연 1회 초청 연수를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을 이어가 알제리의 품종 개발 및 생산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거래정보, 휴업일, 행사·축제 등
가락·강서시장 관련 각종 소식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농수산물 출하 가능 일정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가락시장 소식을 받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